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River & Culture



신정일 | 문화사학자,
사단법인 우리땅길기 이사장
(hwangtoh@paran.com)

한강하구의 역사·문화 기행

한강의 하구 습지

지난 2008년 10월 경상남도 창원에서 람사르 총회가 열렸다. 람사르 협약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람사르 협약은 '철새 서식지 보호'라는 것만을 협약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습지를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자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순천만이나 우포늪, 주남저수지들이 세계적인 습지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습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하구는 남북 분단이 만들어낸 중요한 습지가 펼쳐져 있는 곳이다.

강원도 태백 검용소에서부터 시작되어 줄기차게 이어온 한강은 강원도, 충청북도를 지나 다시 원주시를 거쳐 경기도 여주 땅에 접어든다. 이포나루, 양근나루를 지난 강물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한강이 되는 팔당댐을 지나며 덕소에 접어들고 구리, 광나루를 지나고 용산, 여의도 앞 밤섬과 선유도를 거쳐서 방화대교에 이른다.



〈사진 1〉 태백의 검용소

강서습지

방화대교 아래에 체육공원과 함께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강서지구 습지생태공원>이다. 오만분의 1 지도 상에 철새도래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곳 ‘강서습지’는 생태공원으로 확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서울 부근의 한강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기존에 조성된 인공수로가 물의 유출입이 원활하지 못해 물이 고여 수질이 악화되는 등 인공수로 본래 기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인공수로 유입구와 출입구에 대한 물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공사를 실시해서 담수지 폭을 넓히면서 1,004m의 수로 정비를 실시하고, 1,795m 길이의 산책로도 새롭게 조성된다. 또 1만6,095주의 관목을 새로 심으며, 2만3,759본의 초본 및 26주의 교목도 심어져 공사가 완료되면 서남권 최대의 생태공원으로 자리매



(사진 2) 강서습지- 새로운 위락공간



(사진 3) 강서습지를 찾는 사람들

김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 강서습지를 찾는 이용객은 2006년의 경우 52만874명이고, 2007년 51만8,856명이며 해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는 “지난해(2007년) 11월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조류는 31종 177개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조사돼 공사 전 생태보호를 위해 조류 개체수가 가장 적은 봄부터 여름철까지만 지반공사를 한다.”며, “이후 순차적인 작업 진행을 통해 공원 내 동·식물이 자연스럽게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강서습지 생태공원은 지난 2002년 인공수로 및 습지 등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6년 만에 생태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강하구의 습지보호지역은 장항습지, 유도습지, 사암리습지, 신남습지 등 모두 6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제공한 한강하구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한강하구의 생태적인 범위를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강과 임진강을 따라 한강하구로 흘러든 모래와 빨은 강화남단의 드넓은 갯벌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의 하구갯벌이 남아있는 곳이 한강하구이며, 한국의 습지 중 물새들의 개체수가 가장 많은 곳도 역시 한강하구이다. 한강하구는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의 강 하구가 거대한 독으로 막힌 호수 형태와 달리 자연하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분단의 현장이라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서울시 강서구를 지나 김포시에 접어들면 길은 남북분단을 상징하듯 계속 철조망으로 이어진다. 전호리(錢湖里)는 제진섬, 제진도, 저호, 전당리라고 불리는데 본래 김포군 임춘면의 지역으로서, 한강가에 섬이므로 전당이라 부른다. 이곳 전호리에는 각시의 소유였다는 각시논이 있고 무당의 논이었다는 무당논이 있으며 개는 위에 있는 논은 어느 흥년에 술 한 잔을 주고 얻었다는 술한잔배미가 있다.

이곳 전호리와 신곡리 부근에서 굴포천이 한강으로 접어들다. 판개라고도 불리는 굴포천은 인천시 철마산에서 발원

하여, 북동쪽으로 흐른 뒤 부천시 북관을 지나 계속 북쪽으로 흘러 부평평야를 이루고, 계양을 동북쪽을 거쳐 고촌면 전호리 평야를 지나 신곡리 경계에서 한강으로 들어간다.

고려 때 굴포천에 운하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다. 고려 제 23대인 고종 때 권세를 잡고 있던 무신 최이(崔怡)는 한강물을 끌어들여 운하를 만들려고 전호리에서 계양면 상하리까지 파다가 중지하였다. 그 이름이 '김포 굴포' 작업이었는데 현재의 인천시 앞바다 들머리에서 남구 간석동에 있는 원통이 고개까지 곧바로 뚫어서 현재의 강서구인 양천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강으로 들어가기 위한 공사였다. 풍수가 들은 인천과 한강 양쪽에서 땅을 파들어 가다가 중단된 이유를 풍수지리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멈췄을 것이라고 한다. 사실 당시 무신정권의 몰락과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두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뒤인 조선 11대 임금인 중종 때 권신 김안로(金安老)가 이곳에 운하를 파다가 그 역시 죄에 몰려서 죽는 바람에 중단되기도 하였다.

고촌면을 지나면 김포시다. 서거정은 그의 시에서 김포를 “산봉우리는 연꽃같이 천 송이나 되었고 강물은 포도빛 같은데 몇 상앗대 길이나 되나” 하였고, 양성지(梁誠之)가 그의 시에서 “지역이 고양(高陽)과 닿았으니 웅당 술은 있으려다. 강이 한수와 통했는데 물고기 없으랴” 하였던 것처럼 웅어, 뱀어, 송어, 잉어, 게, 새우, 물고기 부레, 석화, 토화, 비지락 등이 많이 났는데 이제 웅어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한강변에 있는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는 본래 김포군 고란태면의 지역으로 별판의 작은 산 위에 있으므로 상미, 또는 향미, 향말, 향산이라고 하였다. 구향미 동쪽에 있는 논은 예전에 갈대밭이었으므로 갈대배미라고 부르고, 구상미 남쪽에 있는 들은 위쪽에 개가 있었는데 그 건너가 되므로 웃개 건너라고 부른다.

거미설피 남쪽에 있는 논은 그 생김새가 우리나라 지도처럼 되었으므로 지도배미라고 부르며, 향촌 서북쪽에 있는 논은 갯벌이었으므로 벌논이라고 부른다. 향산리에서 한강 건너 보이는 습지가 장항습지다.

고양의 장항습지

고양시 장항동은 본래 고양군 중면(일산읍)의 지역으로 노루의 목처럼 생겼으므로 노루목 또는 장항(獐項)이라고 하였는데, 노루목 북쪽에 있는 마을은 다나무가 많아서 다밭 또는 저전이라고 부르며, 노루목 남서쪽에 있는 마을은 무사가 검술을 닦던 곳이라고 하여 무검(舞劍) 또는 무검말이라고 부른다. 무검 동남쪽에 있는 산염(山鹽)마을은 옛날 소금을 생산하던 곳이었으며, 산염 동남쪽에 있는 노점이라고도 부르는 노점마을은 갈대가 무성했다.

장항습지가 있는 장항리

이곳 장항리에 장항습지가 생긴 것은 분단상황 때문이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 만들어진 한강하구의 장항습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버드나무 군락을 자랑한다. 장항습지는 일산대교부터 김포대교까지 약 8km의 구간이다. 일산에서 자유로를 타고 서울로 들어갈 때 오른쪽에 길게 펼쳐진 장항습지는 철조망으로 감춰져 있다. 이곳 장항습지는 군사보호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남북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지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철책이 설치되어 인간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그 결과로 이곳에서 여러 종류의 생명들이 마음 놓고 생존하게 되었다. 장항습지를 두고 한강하구의 마지막 남은 기수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큰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5대강 중에서 섬진강과 더불어 하구둑이 없는 한강하구에는 기수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기수역이란 강물이 유장하게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 바닷물과 섞이는 곳으로 이곳에는 광범위한 염분농도에 적응하여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다.

갯벌의 유기물을 걸러먹는 ‘펼콩게’ 들이 수없이 많은 구멍을 만들고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갯벌을 살아 숨 쉬게 한다. 이곳 장항습지에는 한강하구의 기수역에서만 볼 수 있는 ‘참게’도 많이 있다. 바다에 가까운 하천유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참게는 한강의 대표적 어족자원이며, ‘말뚝게’는 버

드나무 아래 땅에 구멍을 파놓고 겨울내 이곳에서 지낸다.

장항 습지의 버드나무 군락

장항습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버드나무 숲이다. 장항 습지의 8km 구간 전체를 뺨뺨이 둘러싸고 있는 버드나무 군락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였다. 처음에는 습초지였던 이곳이 인간의 모래채취 등으로 인해 버드나무 군락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지금은 유기물들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철새들의 안전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 장항습지에서는 갈대 숲 사이로 뛰어들고 있는 '고라니'를 자주 볼 수 있다. 대략 100여 마리의 고라니가 살고 있다고 하며 장항습지에 살고 있는 또 하나의 동물이 '너구리'다.

이곳 장항습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철새가 여름철새 '왜가리'인데, 장항습지는 한강하구 일대에서 가장 많은 겨울 철새가 집중하여 모이는 곳 중의 한 곳이다. 해마다 3월이면 '전 세계에 6천 마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멸종 위기 종으로 알려진 재두루미의 도래지이며 국내 최대의 '큰기러기' 도래지다.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호되고 있는 큰기러기는 이곳에서만 1만여 마리가 겨울을 지낸다. 천연기념물인 '개리' 역시 해마다 1천여 마리가 이곳 한강하구를 찾아서 그들만의 삶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갈매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 장항습지 부근의 한강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은 황복, 칠뺨장어, 뱀장어, 눈치와 모래무지, 농어 같은 다양한 어종이다. 그런데, 이곳을 지켜주고 있던 철책선이 금명간에 제거될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와 김포, 고양시에서 합의해서 철책선을 제거하고 공원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의 발길 때문에 새들이 더 이상 갯벌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재두루미와 큰기러기 등 겨울 철새 10,000여 마리가 도래하여 장관을 이루는 장항습지는 2006년 4월 17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겨울철에는 우점종인 큰기러기와 재두루미를 포함한 총 42종 24,000여 마리의 철새가 관찰되고 있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 인간과 자연의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남아 있을 것인가 피폐해질 것인가는 결국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강 변의 옛 이름들

걸포동 운양동 누산리를 지나서 김포시 봉성리에 이른다. 이곳 봉성리에는 가리밧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에 얽힌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덕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보가 이 고개 밑에 살면서 어머니를 지극하게 섬기었는데 장가를 가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놀리는 말로 이 고개에서 기다리면 아내 될 사람이 온다고 하자 이 고개에서 아내가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사람이 지나가고 맨 나중에 아름다운 처녀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달밤에 혼자 달을 보고 그 처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그 처녀가 나타나 갈 곳이 없으니 같이 지내게 해달라고 간청하므로 기뻐서 같이 살게 되었고 그들은 부자가 되어 잘살게 되었다고 한다.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에 접어들고 여기서부터가 옛 통진 땅이다.

김포에 통합된 통진

통진의 고구려 때 이름은 평회(平淮) 또는 압현(押縣) 내지는 비사성(比史城)이라고 하기도 하였고, 별사파의라고 하기도 했다.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통진의 형세를 두고, "서쪽으로 갑곶을 등지고, 동쪽으로 세 봉우리가 바라다 보인다. 큰 강이 왼편으로 스쳐간다." 고 하였는데 큰 강은 염하와 조강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문장가 서거정은 양성지의 대포곡 별장에서 김포일대의 형세를 두고 팔경시를 남겼다.

금년 농사는 풍년이로세.

어촌에 등불은 깜박거리고

농어도 게도 그물질 할 만하겠네.

강은 한없이 넓고 그 강변에는 코스모스와 홍초꽃이 숲

을 이루고 있다. 이곳 안말(내촌동) 동북쪽에는 큰 입을 벌리고 있는 용 모양의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서려 있다.

『어느 날 늙은 중이 시주를 청하러 왔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시주를 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자 그 중이 하는 말이 “저 용이 마을의 양식을 모두 먹어치우므로 마을이 가난해지는 것이니 저 용바위를 부수어야 잘 살게 될 것이요.” 하므로 마을사람들이 모여 상의하기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하늘에 빌기로 결의하고, 온 마을사람들이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빌었더니 하늘이 감동하여 장사를 시켜 이 바위의 입을 부수었다고 한다.』

이 바위 위에는 전류정(顛流亭)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두 가지의 얘기가 전해져 온다. 그 중 하나는 고려 공민왕 때 제학(提學)을 지냈던 민유(閔兪)가 학사 주사옹(朱士雍)과 함께 신돈의 개혁정치에 반대하여 내려와 살면서 전류산 밑에 정자를 짓고 전류정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그들은 이곳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들은 짚신과 지팡이로 서로 방문하며 날마다 시와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일찍이 그가 지은 시에 “가을이 가고 와서 흥이 한없다. 향긋한 버, 살찐 고기 곳마다 같다. 배가 불룩한 술병에 막걸리 담고, 남촌(南村) 첩지가 북촌 첩지와 마주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얘기는 인조 때 여천군 민지옥(閔之鈺)이 부인과 함께 강원도 처가에서 공부를 하다가 병자호란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온 가족이 순절하였으므로 부형과 같이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하여 집을 돌담으로 쌓고, 두문불출하며 벼슬을 주어도 나아가지 않고서 전류산 밑에 정자를 지은 뒤 전류정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용바위 서쪽에 조선 선조 때 일어났던 기축옥사의 주인공 정여립을 진안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죽게 한 태천(苔泉) 민인백(閔仁伯)의 별묘가 있다. 그는 그 뒤 예조참의에 증직되고 여양군에 봉해졌다.

국사동에서부터 강은 철조망과 함께 길게 뻗은 제방으로 이어진다.

조선 초기의 문장가 서거정이 김포를 두고 “사방이 확 트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김포 토박이들은 김포를 두고 ‘산이 커야 골이 깊다’고 높은 산이 없어서 큰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자조했다고 한다.

이 김포에는 조선 시대에 이천의 자재쌀과 함께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밀다리쌀의 본 고장이기도 하다. 한톨 한톨의 쌀에서 빛이 나므로 자광미라는 이름을 가진 밀다리쌀은 50년대에 하성면 석탄리의 권광옥씨가 재배해서 수확한 후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낼 만큼 그 맛이 빼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밀다리쌀은 소출이 워낙 적어 지금도 하성면 일대에서 조금 재배되고 있을 뿐이다. 급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김포지만 지금도 김포쌀은 나라 안에서 품질이 좋은 쌀로 그 명성이 높다.

그 명성에 걸 맞는 별판이 홍도(紅島)떨이라는 홍도평야인데 이 평야는 고촌면 향산리와 김포읍, 걸포리, 사우리, 복변리에 걸쳐 있다.

적은 이곳을 보고 있다

어느 덧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농로를 따라 걸어간다. 저 강 건너 오두산 통일전망대 쪽으로 보이는 강이 임진강이고 저 부분에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흐드러진 채 흐르고 있다. 그 너머로 보이는 글귀, 「내가 근무하는 시간과 장소로 적은 쪽을 것이다」 얼마나 지당한 말이며 또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더는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휴전선은 강물 위에도 있다는 것이다. 서해 백령도에서 동해 고성까지 이어지는 휴전선에는 지금도 이렇듯 무심한 듯한 긴장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포, 설탄 배수펌프장을 지난다. 돌여울, 도련이 또는 도연동으로 불리운 석탄리에는 조선 영조 때 안동 선비 권집경이 세웠던 능파정터가 있고, 천연기념물 제73호이며 수령 550년 쯤으로 추정되는 석탄리 은행나무가 있다.

모정동 북쪽에 있는 도당골에서는 도당굿을 했었고 능파

정과 골말 사이에 있는 평곳재에는 빙고가 있었다고 한다. 도련이 서쪽에 있는 다리물(두곡)에서 후평까지는 일직선으로 뻗은 제방 때문에 심심하기 이를 데 없다. 역새와 갈대가 숲을 이루고 꽃잎이 작은 쭉부정이 피어 있는 그 길에 며느리밀 씻개와 한삼널물이 가을볕에 노랗게 사우어간다.

원래 통진군 소이포면 지역으로 테메 뒤에 넓은 들이 있기 때문에 뒷들 또는 후평리라고 부르고 있는 후평리 후촌동을 지나 당고개 동남쪽 모퉁이에 아گاهی 있었다고 하는데 도굴당하여 터만 남아 있다. 노루메 남쪽에는 검은색의 큰 바위가 있으며 옛날 장사가 앉았던 자취가 남아 있다고 하여 장수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감바위 또는 시암리라고 부르는 이곳 길목 아래쪽에 있는 논에서 나온 소출로 대동세(大同稅)를 냈기 때문에 대동배미라고 부르고 안질바위 서쪽에 있는 바위는 작은 바위 위에 큰 바위가 얹혀 있어 조금만 밀어도 흔들거리기 때문에 흔들바위라고 부른다. 이곳 시암리에도 습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멸종위기종인 큰 기러기가 서식하고 있다. 갈대밭이 무성한 시암리 습지는 철책선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옥심 갈아서는 영촌동(방울터)마을에서 드넓게 펼쳐진 임진강과 한강을 만나야 하는데 갈 수가 없으니 마음만 안타까울 뿐이다.

임진강은 덕원군 풍산면 용포리 아호 비령 두류산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파주군 탄현면 성동리와 개풍군 임현면 정관리 사이에서 한강에 합류한다. 임진강은 본래 고구려 진임성으로 산라 경덕왕 때 임진으로 고쳐서 개성군 의영현이 되었다. 그 뒤 강을 건너는 나무를 임진도, 이 강을 임진강이라 부르게 된 듯하다. 또 이 강을 칠중하(七重河)라고도 불렀는데 이 물이 칠중성(七重城, 지금의 적성) 앞을 흐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지류 중에 한탄강(漢灘江)이 있다. 한탄강은 6·25 동란 때 이 강으로 인하여 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한탄하며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잘못 알려진 강이다. 한탄강의 ‘한’은 ‘크다, 넓다, 길다’는 뜻과 ‘탄’은 ‘여울, 강, 개’의 뜻이 합한 순수한 우리말 강 이름이다. 내가 군대생활을 했던 철원평야를 흐르는 한탄강에는 직탕, 고석

정, 삼부연폭포 등의 명승지들이 많이 있다. 임진강이 한강과 만나는 지점에 펼쳐진 습지가 신남습지이다.

시암습지가 있는 곳

또한 통진면 시암리에는 처녀바위라는 마치 발가벗은 듯한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가 드러나면 귀전리 사람들이 음행이 자주 생기므로 귀전리 사람들이 아주 깨버리려고 도끼, 정, 망치들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청천벽력이 일어서 여러 번 실패하였다. 그래서 그 바위를 흙으로 묻었더니 시암리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시암리 사람들이 파놓으면 귀전리 사람들이 다시 묻고 하여 그 바위가 마을 간의 사비 거리가 되었으나 1960년에 한강 토지개발 조합의 물길 독이 생기면서 아주 묻혀진 뒤부터 두 마을에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처녀바위 말고 또 다른 바위가 시암리에 있는데 그 바위가 금바위이다. 옥개울 서남쪽에 있는 이 바위에 오르면 사방이 환하게 보여서 와우형의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 바위가 심술을 부려 아무리 용한 지관이라도 그 명당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 바위를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하여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고민이 있는 사람이 이 바위에 가서 정성껏 기도를 드리면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한다.

멀리 북녘의 산들이 별거벗은 채 시야에 가득하다. 그 너머 개성이 있을 것이다. “개성 사람은 오줌도 맛보고 산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이재가 밝았던 지역이 개성이었다. 고려 왕조의 오백 년 왕도였던 개성을 떠올려본다. 가좌와 금포 이름 한자씩을 따서 가금이라고 이름 지은 가금리의 보신암마을에 접어든다. 가좌동에서 월곶면 조강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가재물고개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강은 철조망 너머로 드넓다.

애기봉에서 북녘을 바라보다

걸어 갈 수가 없고 차로 통과해 가야 하는 보신암 북서쪽에 있는 애기봉은 일명 속갓머리산으로 높이가 EL.143m이다. 이



(사진 4) 애기봉에서 바라본 임진강

산에는 평안감사와 사랑을 나누었던 애기의 슬픈 사연이 서려 있다. 의종계 살고 있던 두 사람이 병자호란을 당하여 할 수 없이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종로에서 평안감사는 청나라 군사에게 잡혀가고, 애기 홀로 조강리에 와서 날마다 속갓머리산에 올라가 북쪽을 바라보며 애타게 평안감사를 기다렸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평안감사는 오지 않고 애기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내가 죽거든 저 봉우리에 묻어주시오” 그런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에 따라 이 산 꼭대기에 묻었다고 한다. 그런데 1953년 휴전협정에 따라 휴전선 남쪽 끝이 되므로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애기봉에 비를 세우고 노산 이은상이 시를 지어 기리었으며, 그 옆에 30미터나 되는 철탑을 세워서 태극기를 달고,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 오색 전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사라진 조강나루

애기봉에서 내려다 보이는 조강리는 조강개, 조강포라고 불리었던 지역으로 통진에서 개성군으로 통하던 큰 나루터였

다. 그러나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잠정폐쇄가 되고 말았다. 한강의 하구 조강포(祖江浦), 즉 조강나루는 통진에서 개성으로 건너던 큰 나루였다. 조강나루에는 한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개성이나 한양으로 세미(稅米)를 싣고 가기 위해 만조(滿潮) 시간을 기다리는 조선(漕船)의 사공들이 모이는 큰 포구였다.

조세를 납부하는 철이던 전국의 여러 곳에서 모여든 배들과 뱃사공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포구에는 주막과 음식점 숙박업소들이 성시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곳 조강을 들어서서 한강을 왕래하던 뱃사람들에게 조강을 넘나드는 밀물과 썰물 곧 사리와 조금현상은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런 연유로 이구보는 조강 일대의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현상을 〈조강의 날에 따른 밀물 썰물 시〉로 남겼다.

초사흘간은 토끼 때(卯時), 다음 사흘은 용 때(辰時) 또 다음 사흘은 뱀 때(巳時), 그다음 1일은 말 때(午時) 양 때(未時)가 사흘이요, 그다음이 잔나비 때(申時)

달이 기운 후에도 이와 같으니라.

이규보가 살펴본 것처럼 바다 조수의 밀물은 매달 음력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를 주기(週期)로 하고, 그 주기가 다시 16일부터 되풀이된다. 조강 근처의 조수는 초하루부터 사흘간은 아침 5시부터 7시 사이까지인 묘시에 밀물이 들고,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은 7시부터 9시까지인 진시에 들며, 7일에서 9일까지 사흘 동안은 9시부터 11시까지인 사시에 들고, 10일 하루만은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인 오시에 든다. 11일에서 13일까지 사흘 동안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인 미시에 들고, 14일과 15일 즉 2일 동안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인 신시에 주기적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16일부터 그믐까지는 초하루에서 보름 때까지 반복된다는 것이다.

통천과 교하, 그리고 풍덕 일대 조강 부근의 물살이 다른 곳과 달리 유달리 세차다고 한다. 유배를 가던 그 외롭고 고독했던 시절에 그 세찬 물결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이규보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넓디넓은 강물은 경수(溟水)처럼 탁(濁)한데
물은 시커멓고 굵어보기조차 두렵기만 하다.
여울은 사납고 또 급하니
중국 구당(瞿塘)의 삼협(三峽)인들 비교가 되랴
여러 냇물이 모여 세차고 빠르게 흐르는 강물
솔의 물이 끊듯 웅숭음친다.
공룡 악어가 입 벌리고 침 흘리는지
독룡이 엮드려 숨어 있거나 얹는지 알 수가 있나.
여울을 거슬러 빨리 건너려고 하건만
배는 가는 것 같으면서 그대로 멈춰 있는 듯
아직 저녁 전인데 킁킁해오고
바람은 없는데도 물결은 일어
눈 같은 파도 조약돌에 부딪쳐 부서졌다 솟구쳤다.
마치 지난 날 진(秦)나라와 진(晉)나라가
한판 싸움을 벌리던 것 같다.
사공은 물귀신과 이미 친해졌으련만

그래도 큰 바윗덩이가 맴돌 듯 빙빙 돌아 흐르는 물을
언뜻 보기에도 무서워하는 듯
하지만 웅숭을 치고 성깔 부린다 한들 어찌 먼 길이라 하리.
나는 이미 귀양 가는 몸 험한 여울을 만났지만
외로운 배들 위태로이 나타났다 숨었다 하네.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마냥 한가로울까.
바라다보이노니 평평한 언덕의 풀빛마저 어두운데
먼 포구로 올라가자니 을시년스럽기만하다.

고려 때의 문인 백원항(白元恒)은 조강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나룻배 떠날 무렵 늦은 조수(潮水) 밀렸는데
말을 멈추고 나루터에 서서 홀로 웃음 짓네.
언덕 위 세상 사정 어느 날쯤 끝날지
앞 사람 건너기도 전에 뒷사람들 또 오누나.

그러나 1953년 휴전협정에 의하여 조강포는 그때부터 잠정 폐지되었고, 그렇게 번성했던 조강포는 현재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기름진 들판이 되고 말았다.

갯물이 넘나들어 나드리 방죽, 선 바위가 있는 선바윗골, 선창이 있어서 선창모퉁이, 울안이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인 치맛골, 그리운 그 이름들은 어디며 쯤일까?

그뿐인가? 돌안에서 개곡리 말안으로 넘어가는 돌안고개, 울안에서 고막리로 넘어가는 방아고개, 울안에서 용강리로 넘어가는 분 고개, 등 고개는 왜 그리도 많은지, 이곳 조강리에서 성동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서느재인데, 그 지세가 하도가 팔라서 올라가려면 서서 기어 올라가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이곳 김포시에는 구전되고 있는 민요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달거리창부타령인데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매월 명절 때마다 불렀던 노래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짓달이라 잡아를 드니 계절은 벌써 내년이라, 동짓팔죽을 먹고나보니, 원수의 나이는 더 먹었는데, 님은 더 하나 안

생기나, 열씨구나 좋구료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또한 열두 달 소리는 “대천바다 한 가운데, 뿌리 없는 나무가 낳는데, 그 나뭇가지는 열들이요, 잎은 피어 삼백예순, 그 나무에 열매가 열어, 일월인가, 명월인가, 꽃이야 곱다마는 가지가 높아 못 꺾겠네.”

한강변의 고개와 나루

한편 산보다 들이 넓은 김포에는 이름난 고개와 한강변에 자리 잡은 나루들이 많이 있다.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는 동남배미라는 논이 있는데 신축년(1901) 흉년에 비가 내리지 않아 모를 못 심고 동남을 다녔다는 논이 있으며, 장차리 남쪽에서 고촌면 사무소 뒤로 넘어가는 고개는 옥녀가 거문고를 뜯는 형국이라는 뜰들재가 있다. 신곡리에서 김포읍으로 넘어가는 천등고개는 강화도령이 임금에 올라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이곳에서 서울을 바라보며 ‘어서 가자’ 하고 천등 같은 호령을 질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촌면 풍곡리에는 배대잇골이 있는데, 옛날 조숫물이 드나들어 배를 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고, 김포시의 감바위 나루는 고양시 송포면 이산으로 건너가던 나루였다. 특히 감바위 나루에서는 서울까지도 길이 이어졌었는데, 이곳 주민들은 일제 때만 하더라도 이 나루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인 고양시 송포면의 이산포 나루로 건너가 그곳에서 일산까지 걸어간 뒤에 일산에서 경의선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갔다. 그런데 6.25동란이 끝난 뒤 배를 타고 서울로 가는 사람이 끊겨 나루의 기능을 잃고 말았다.

고양시 송포면 법포리로 넘어가던 나루가 운양리 나루이고, 양촌면 유현리 굿들개 북쪽에 있는 들판은 나루가 있어

서 나루새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월곶면 포내리의 대나루는 불꾸지산 동남쪽 한강가에 있고, 김포시 하성면의 대동(大同) 배미는 이곳에서 나는 곡식으로 대동세(大同稅)를 충당했으므로 지어진 이름이다.

유도 습지가 있는 곳

한글학회에서 펴낸 『한국지명총람』에 “보구곶리(浦口串里) : 본래 통진군 보구곶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보습처럼 생겼으므로 보습고지, 보스곶, 보수꼬지, 보수구지 또는 보구곶, 보구꼬지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보구곶리라 해서 김포군 월곶면에 편입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보구곶리의 한강에는 머머루, 머머리, 머머리섬이라고 불리는 유도가 있다.



〈사진 5〉 보구곶리의 들판



〈사진 6〉 한강 천삼백 리를 느리게 걷는 우리 땅 걷기 회원들



(사진 7) 보구곶리의 철새

그 옛날 홍수에 떠내려 오다가 이곳에 머물렀다고 전해오는 이 섬은 개가 누워 있는 모양으로 머리, 몸, 네 개의 발이 분명히 보이는데, 입과 코 부분에 높고 깊은 동굴이 있어서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가 있을 만큼이라 한다. 밑은 바닷물이 드나드는데 큰 이무기가 살았다 한다.

여름철 한강 상류에서 홍수가 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내려와 이 섬에 머무는데 그 가운데 뱀이 특히 많다고 한다. 옛날 이 섬에 자유로이 드나들었을 때는 뱀을 잡으러 오는 땅꾼들로 붐볐다 한다. 현재는 군사분계선 안에 있어 사람들은 드나들 수 없으나, 자유스럽게 날아다니는 학을 비롯하여 왜가리, 두루미 등의 조류들에게는 이 섬이 조용하고 먹을거리인 뱀들이 많아서 지상의 낙원이라 할 만하다.

이곳 유도에 있는 습지를 유도습지라고 부르는데, 이곳에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산란지로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가운데 평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저기 염하를 건너 보이는 곳에 연미정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이다. 강화라는 이름은 한강이 강화섬 앞에서 바다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섬을 한강물이 빚어낸 한떨기 꽃으로 비유하여 강의 꽃 '강화(江華)'라고 하였다 한다. 강화읍 월곶리 동쪽의 바닷가에 있는 연미정(燕尾亭)은 본래 교동현 읍내리에 있는 정자로 한강과 임진강이 합하여 흐르다가 이곳에 이르러 두 갈래가 되어 한줄기는 남쪽으로, 한줄기는 서쪽으로 흘러 마치 제비꼬리처럼 생겼으

므로 연미정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유도섬이나 한강이 바다로 합류하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다.

보숫골 서쪽에 통수처럼 생겼다는 통수배미도 흥년에 팔떡과 바꿨다는 팔죽배미도 사람을 많이 문었다 하는 구슬푼이도 이곳 보구곶리에 남아 있는 옛 이름이다.

이근배 시인의 <한강> 마지막 부분이 사뭇히 내려 앉았다. ●

한강

내일로 흐르는 강
호랑이처럼 내닫고
용이 되어 오르는 강
꺼지지 않는 불꽃의 강
우리들의 비원인
통일을 실어오는 강

오오 일어서라

천둥처럼 지축을 흔들고
가슴에 담은 산 같은 기쁨 터뜨려
이 땅에 가득하리라
종소리가 되리라
목숨이 되리라